

‘면허 부동산화’에 막혀...택시 자율감차 올스톱

광주시, 택시총량제 기준 보다 1천410대 과잉 공급 예산 미편성·고액 면허 가격 이유로 사업 진행 차질

올해 광주에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광주시는 택시총량제에 따라 1천여대가 넘게 과잉공급 된 상태로 자율감차가 부득이한 실정이지만, 예산 미편성과 감차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사업 진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는 8천153대(법인 3천364대·

개인 4천789대)로 국토부가 산정한 택시총량제 적정 기준보다 1천410대가 과잉공급됐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국토부에서 진행한 제4차(2020-2024년) 택시총량제 산정용역에 따라 광주시 적정 택시총량은 총 6천743대(법인 2천787대·개인 3천956대)로 감차 목표량은 1천427대였다.

택시 자율감차 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과잉

공급된 택시면허 수를 감차해 택시 소득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 택시 자율감차 사업 추진 이래 단 두차례(2018년, 2020년) 진행됐으며, 올해는 예산 미편성으로 올스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통해 법인택시 13대에 대한 감차를 진행, 총 5억7천200만원을 보상했다.

지난해 1대당 보상기준액은 4천400만원(국비 390만원·시비 2천160만원·국토부 감차제한 1천만원·택시업체 조합 출연금 850만원)이었다.

앞서 2018년에는 법인택시 30대 감차 실적은 보였으며, 대당 보상액은 4천600만원(국비 390만원·시비 1천710만원·국토부 감차제한 2천만원·택시업체 조합 출연금 500만원)으로 보상총액은 13억8천만원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방역 관련 예산으로 집중 편성되면서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관련 예산이 미 편성됐다. 특히 광주시에선 택시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택시 면허 시장은 되려 호황기를 누리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고 있다.

두 차례 있었던 감차 사업 모두 개인택시는 불참했는데, 그 이유로 시중 면허

가격과 보상금액 가격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와 택시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기준 순수 차량 가격을 제외한 면허 가격은 1억원 이상을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돼 보상금액보다 개인간의 면허 양도 가격이 6천여만원 많은 셈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청년·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면허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로 면허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면허 가격은 유지 또는 증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과 같이 이용객 수가 급감했으니 다시 영업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자율 감차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택시업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당초 택시 감차 사업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정작 예산 미편성과 높은 시장가격 때문에 '택시 면허의 부동산화'라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에 따라 과잉공급된 상황이나 광주시의 면허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면서 "올해 코로나 비상상황에 따라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으나 감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기자

광주시의회, 복지시설 위문 잇따라

광주시의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 릴레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김용집 시의회 의장과 조석호 정순애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오는 16일까지 지역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9개 시설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이날 남구 서동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을 찾아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시설은 지난 31년 간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의 안식처가 돼 주고 있다. 위문품으로 쌀 100kg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김용집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보듬고 토닥여 함께 나아가는 광주 정신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추석을 앞두고 광주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릴레이에 나선 가운데 8일 김용집 의장이 한 시설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시 제공>

“이낙연은 ‘여성의 삶’ 지켜주는 후보”

민주당 전남 여성당원 2천500명 지지 선언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2천500여명의 여성당원들이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여성당원 대표들은 8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지역 여성당원 2천500여명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를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낙연 후보는 전남 지역구 4선 의원, 민선 6기 전남지사로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면서 “전남과 지방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만이 지역불균형을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이어 “이 후보는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전남지역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삶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돌봄의 부담을 사회 전체가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이낙연 후보는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의 가치와 민주당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세분의 대통령의 역사와 가치를 오롯이 함께 해왔던 이낙연이 후보가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임후성기자

국제관광박람회서 전남 안심 여행지 알린다

도, 수목비엔날레·농업박람회 등 관광자원 소개

전남도는 9월 잇따라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와 제23회 부산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워드(With) 코로나 시대 대비 안심하고 여행하기 좋은 전남의 매력적인 가을 관광지를 알린다.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9일부터 12일까지 아시아 스마트관광 산업대전, KITS 트래블 마트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해의 14개국을 비롯해 국내 95개 지자체, 관련 기업 179개 업체가 참가해 관광, 문화, 문화를 홍보한다. 스마트관광 산업대전, 여행 일러스트 페스티벌, SNS 여행

행사진전, 체험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경향인 스마트관광에 대해 기업 간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해외 30여개 국가·지자체, 기업 등 200여개 업체에서 300여개 이상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잘 알릴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하는 전남관

명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관광박람회서 안심 관광지, 가을과 어울리는 관광지의 홍보는 물론 10월31일까지 이어지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10월21-31일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2022-2023년 포스트 코로나 전남 방문의 해 등도 소개한다.

특히 전남도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관람, 부스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전남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잘 알릴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하는 전남관

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깔끔 이부자리 사업, 관광지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전남에서 안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우승희·한근석 도의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임명

전남도의회 우승희(영암1)·한근석(비례) 의원이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한 핵심 집행기관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 의원은 2019년 개발정책대상과 청소년희망대상, 2020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2021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과 한국지

부로 인정받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조례를 제·개정하고 인구조별 실업률 저감, 청년취업지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임후성기자



우승희 한근석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교차로 우회전 시 서행 및 주의운전은 필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곳입니다.

최근 2년간(2018~2019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
사업용	2,133	71	3.3
비사업용	6,826	70	1.0
합계	8,959	141	1.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명)보다 높음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치사율은 평균보다 2.1배(3.3명) 높음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 주최 | | 후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롯데쇼핑(주)